

“우리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라”

요한복음 2:1-11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적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 넘는 기적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기적’이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적은 사람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행하신 기적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뽑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 2:3)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1. 기적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시작된다.

만약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했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 사건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방향이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로 바꾸는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 2:3)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있게 만듭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은 이제 주님과 상관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도 사정을 하고 매달리면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만 구해야 들어주실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로 맡겨,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 2:5)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고 묵묵히 순종만 합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조건 없이 즉, 무조건 신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고성을 6 일동안 하루에 한번씩 돌고, 7 일째 되는 날은 일곱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7 일째에 일곱번 돌고 성이 무너질 것이었다면, 6 일동안 한바퀴씩 돌았던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따져 묻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4.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향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 2:7-10)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최고 품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창조주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겉모습만 바꾸며 그에 대해 만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전혀 가망 없던 것도 예수님이 하시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학이나 종교, 의식이나 지식을 가져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던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맛이 없던 사람이 맛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삼상 2:6-8)

이것은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난 뒤에 했던 찬양입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자신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굉장히 약하고 흉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자,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그의 타락한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독교가 대단한 이유는, 단지 이것이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전까지 살았던 모든 경건치 못한 삶을 청산하게 되고,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인생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력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설교에 의하면, 기적은, ①예수님을 초청할 때, ②기도할 때, ③ 순종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세가지 중의 하나의 경험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일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오늘 말씀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